

Vol.029

SUNGWOO
HITECH
MAGAZINE

별을 리리 쏘다

2024+ Spring

창룡의 활판 기운을 성우가족에게 드려용!



CONTENTS

Vol.029 2024+SPRING

SUNGWOO
HITECH
MAGAZINE

7

SUNGWOO PEOPLE



12

CHALLENGE



16

EDUCATION



20

EDUCATION



4

ISSUE & NEWS

7

SUNGWOO PEOPLE

- ▶ 성우인들의 노력과 협심이 빛났던 한 해
 - 2023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 ▶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 2023년 정년퇴임식

12

CHALLENGE

- ▶ 만추 한가운데서 바다 위를 수놓다

16

EDUCATION

- ▶ 창의를 미래다
 - 2023년 신입사원 역량개발과정
- ▶ 암흑 속 맞잡은 손, 한 줄기 빛이 되어
 - 2023년 성우하이텍 계층별 교육
- ▶ '4세대 공존'을 위한 차세대 리더십
 - 2023년 승진자 리더십 과정
- ▶ 서창공장을 가득 메운 열기와 땀방울
 - 신입사원 현장실습

30

COLUMN

- ▶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조직문화

34

THANKS TO

- ▶ 아름다운 그대에게
 - 칭찬 릴레이 'S-Thanks' 2023년 결산 대공개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청룡의 힘찬 기운을 성우가족에게 드려용!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청룡은 풍요와 위엄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2024년 한 해, 승천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이
성우가족 모두에게 닿기를 희망합니다.

38

TOGETHER



44

HEALTH



50

GOING



56

SOCIAL CONTRIBUTION



38 TOGETHER

- ▶ 언론이 주목한 성우하이텍
- 노사화합의 복지문화 토크보기
- ▶ “딩동~ 성우 산타가 왔어요!”
성우하이텍 어린이집과 함께한 Merry Christmas!

44 HEALTH

- ▶ 체력 어서 오고, 스트레스 잘 가고!
- 헬스 트레이너 핏블리 초청 강연
- 아산성우하이텍 체력단련실 새단장

48 GAME

- ▶ 갑진년 기념 로직 게임
청룡의 힘으로, 비상하자 성우!

50 GOING

- ▶ 칠갑산, 별과 호수와 황룡 이야기!

56 SOCIAL CONTRIBUTION

- ▶ 겨울애(애) 희망饌(찬) 어벤저스,
올해 김장도 부탁해!

58 GAME

- ▶ 갑진년 기념 로직 게임
힌트·정답 및 완성본

별을
쏘다

발행일 2024년 2월 1일 (통권 제29호) 발행인 이명근

발행처 (주)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정보사업본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01. 성우하이텍, 부산시와 ESG 확산 및 지속 성장을 위한 MOU 체결



7월 10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생협력 확산과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영환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당사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ESG 실사법이 2023년 독일에서 시행되고, 2024년부터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23년 5월 정부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부산시 상생협력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이후 전국 최초로 부산이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ESG 실사법은 EU 수출 기업 공급망과 관련된 납품·협력기업이 인권과 환경, 윤리 등을 침해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문제 발생 시에 시정조치 및 해당 내용 공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 등은 ESG 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준비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시와 부산상의, 중진공은 부산지역 기업 중 원청기업 6개사를 선정하여 공급망 관리 특화지표 개발 등 ESG 인식 확산과 동반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ESG 경영 자문을, 중진공은 심층 진단을 지원하며, 원청기업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ESG 심화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성우하이텍은 부산시, 부산상의, 중진공과 긴밀하게 공조해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ESG 경영과 탄소 중립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02. 안전 일터 조성의 날 행사 열려



9월 14일 양산 서창공장에서 ‘9월 안전 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경남동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우하이텍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성우하이텍은 시행 중인 CSO(최고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정기적인 순회 점검, 안전신문고 제도, 무재해달성 포인트, 사업장별 안전수준 정기 평가 등 우수한 안전문화 확산 사례를 추진단에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역부터 시작하는 Bottom-Up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된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조직으로,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노사단체, 재해예방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성우하이텍은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03. 성우하이텍 부산바다마라톤대회 개최

에메랄드빛 바다, 넘실거리는 파도 위를 걷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성우하이텍 2023 부산바다마라톤 대회'가 10월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 BEXCO와 광안대교 일대에서 열렸다.

부산바다마라톤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인 광안대교를 두 다리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대회다. 5km 건강달리기와 10km 로드레이스 참가자들은 쾌청한 가을 하늘과 푸른 바다 사이를 즐기며 달렸고, 폴코스와 하프코스는 언택트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는 유례없이 많은 인파가 참가해 평균 10분 내외였던 10km 로드레이스와 5km 건강달리기의 출발 시간 차가 20여 분 이상으로 늘었다. 성우 임직원들도 500여 명이 참석해 가을 바다의 풍광을 누렸다. 화창한 날씨에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성우인들은 모처럼 상쾌한 주말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가족과 동료들의 웃음소리로 들으며 그동안 쌓인 잡념과 스트레스도 바람결에 멀리 보낼 수 있는 아침이었다.

관련 기사
12p



04. 138만 피트니스 유튜버 '핏블리' 운동 특강 진행

관련 기사
44p

11월 2일 서창공장 6층 대강당에서 인기 피트니스 유튜버 '핏블리(문석기)'를 초청해 <운동! 쉽고, 전문적으로>를 주제로 건강 특강을 개최했다.

핏블리는 구독자 138만 명(23년 11월 기준)을 둔 인기 유튜버로 국제 트레이너 및 스포츠영양 코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공중파에 다수 출연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피트니스 초보자를 위한 운동루틴 구성법 ▲3대 운동 자세 및 핵심 포인트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식단 ▲개인 체형 및 자세 교정과 관련해 시범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200여 명의 임직원이 핏블리의 강연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었고, 유익한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강연 후에는 단체 및 개인 사진도 찍으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05. '2023년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

관련 기사
56p



유난히 더위가 길던 올해, 12월이 되자 어김없이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추운 날씨면 더욱 생각나는 김장과 이웃. 올해도 성우하이텍은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를 12월 1일 진행했다.

성우인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 모여 김장을 했다. 이날 맛깔스럽게 담근 김치들은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다문

화 가족, 웅상지역 내 아동센터로 전달됐다. 2012년부터 진행해 온 김장 나누기 행사의 소요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성우공동모금'은 성우 임직원 1,0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만든 기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김장 나눔으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희망한다.

06. '두근두근, 제2의 인생 브라보!' 정년퇴임식 개최

관련 기사
10p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8일, 서창공장 6층 대강당에서 10명의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적게는 8년부터 많게는 38년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성우하이텍과 함께해 온 정규태 기장(금형반), 김홍두 기장(조립3반), 정용호 기장(조립5반), 김현진 반장·서종관 조장·장복신 기장·권영근 기장(이상 사상반), 이상준 조장(기계반), 김완철 기장(지사 조립반), 여수범 책임매니저(체코성우)는 동료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지나온 추억을 반추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퇴임식에서는 퇴직자들이 미리 촬영

한 인터뷰 영상도 함께 감상했다. 각자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입사하면서 다졌던 마음가짐,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마음 따뜻했던 경험, 이루었던 행복과 이루지 못한 꿈, 후배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지기도 했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공로와 업적을 치하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와 함께 자유인으로서 제2의 인생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당사는 2014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임식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SUNGWOO PEOPLE OF THE YEAR

성우인들의 노력과 협심이 빛났던 한 해

2023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성우하이텍은 매년 초 성우하이텍 발전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임직원을 선정,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3년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를 만났다.

명완식

아산 선장공장 지그보전반EV 조장

Q —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선장공장 EV동에 근무하고 있는 지그 보전반EV 명완식 조장입니다. 1997년 4월 1일 입사해, 올해 (2023년 기준)로 2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Q — 2023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선정, 소감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Q —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년 전 EV보전반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활동을 통해 라인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Q — 지난해 나의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 부서의 한 해를 돌아본다면?

차체 신차 관련 업무를 하다 보직이 변경돼, 처음엔 다소 생소한 설비(FSW, FDS, 레이저 용접 등)들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라인이 점차 안정화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이 가져다줄 변화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이번 성우인상을 운 좋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제가 속한 우리 보전반원들에게 다음 상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Q — 수상을 토대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지금 선장공장에서 EV 차종인 NQ6 HEV BSA 아이템을 수주 받았는데, 또 다른 도전이라 생각하고 양산라인 조기 안정화를 목표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Q — 성우하이텍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신 성우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재호

멕시코 법인 자재관리팀 책임매니저

Q —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 법인 자재관리팀 소속 신재호 책임매니저입니다. 2004년 입사해 올해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 2023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선정, 소감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제 성과를 좋게 봐주셔서 수상자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매해 소수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상이다 보니, 다들 축하해 주셔서 기쁩니다.

Q —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멕시코 법인이 자재 구매 및 관리 부문에서 이슈가 다소 많은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애썼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매년 비용 절감에 매진하고, 제품 결함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 지난해 나의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 부서의 한 해를 돌아본다면?

현재 멕시코에서 신규 핫스탬핑 공장 설립이 막바지 단계인데, 지난해 이곳으로 발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설비가 들어오면 2월부터 공장 총책임자로서 새롭게 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새 공장이니 초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 —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이 가져다줄 변화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멕시코가 여러모로 환경이 어려운 곳이라 수상자 선정도 여의치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임원들께서 힘써주신 덕에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일이 많아져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직무에 임해서 수익 구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Q — 수상을 토대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해외 근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학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Q — 성우하이텍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은 해외 취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해외 주재 경험을 할 기회가 있다면 꼭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성장하고 넓은 시야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보전1팀 설비기술반 반장

Q —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 5월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 중인 보전 1팀 설비기술반 정영재 반장입니다

Q — 2023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선정, 소감 부탁드립니다.

성우인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Q —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난 한 해 팀원들과 협심해 코일센터 T/F LINE 생산성 향상 개선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도출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 지난해 나의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 부서의 한 해를 돌아본다면?

2023년은 제가 반장을 단 첫 해입니다. 부서 내 유동 인원이



많다 보니 인적 자원 관리가 힘든 한 해였는데,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제게는 성우하이텍 21년 직장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Q —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이 가져다줄 변화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큰 변화나 기대보다는,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을 받은 만큼 회사 안팎으로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더욱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Q — 수상을 토대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내년에는 우리 팀원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Q — 성우하이텍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023년에도 성우인들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에서 각자 맡은 바 열심히 해 주셨기에, 우리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고 대내외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푸른 용의 새로운 한 해도 모두 안전하고 힘차게 파이팅합시다! 사랑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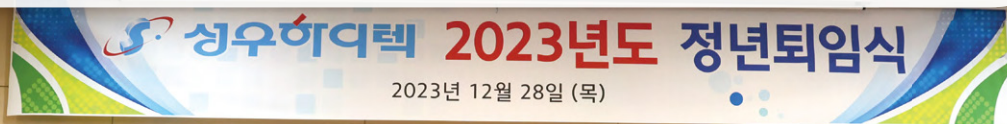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2023년 정년퇴임식

2023년 마지막 출근일을 하루 앞둔 12월 28일 오전,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정년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퇴임식이 열렸다.

올해는 해외 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체코성우 주재원 여수범 책임매니저를 비롯해
서창공장 ▲김홍두 기장(조립3반) ▲정규태 기장(금형반) ▲정용호 기장(조립5반)과 금형공장 ▲권영근 기장(사상반)
▲김현진 반장(사상반) ▲서종관 조장(사상반) ▲이상준 조장(기계반) ▲장복신 기장(사상반),
지사공장 김완철 기장(조립반)이 깊은 감회를 함께 나눴다. 아산성우하이텍은 별도로 퇴임식을 진행했다.



정든 공간, 다정한 얼굴들... 추억은 가슴에 오롯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현장에서 정식으로 개최된 정년 퇴임식에 의미를 두고자, 성우하이텍은 퇴직자 가족들을 행사장으로 초대했다. 식에는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동조합위원장, 팀장 및 조·반장, 소속 팀·반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덕담을 건넸다.

첫 순서로는 퇴직자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간단한 경력 및 주요 실적 소개가 진행됐다. 이후 노동조합과 사측이 준비한 꽃다발이 퇴직자들에게 전달되고, 이 대표이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재직기념패와 퇴직격려금을 전달했다.

인사정보사업본부 총무팀은 퇴직자들의 감사 인사와 수십 년간 성우하이텍에 몸담으며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담은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다. 끝이라는 아쉬움보다는, 나를 성장시켜준 회사와 동료들에게 전하는 고마움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와 설렘이 영상 속에 가득 담겼다. 이상준 조장(기계반)은 “입사 초기 철야 근무를 하고 당시 공장장(현 이명근 회장)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퇴근할 때 씻고 들어가라”며 목욕비를 주여준 것에 큰 감동을 받아 회사에 헌신하게 됐다”며 따스한 추억을 되새겼다.



정년퇴직자들이 영상으로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한 개인이 직장에서 남긴 족적만이 아닌, 성우인들이 함께 쌓아온 단단한 화합과 눈부신 성과가 집약된 서사라 할 수 있었다.



“제2인생의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담담함과 아쉬움, 기쁨과 설렘이 교차하는 퇴직자들의 소감을 감상한 후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이 격려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이사는 “소감 영상을 보니 퇴직자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느껴진다. 모두 지난 시간 대부분의 일상을 회사와 가족 생각으로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에서 마련한 이 축하 자리가 여러분께 조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앞으로도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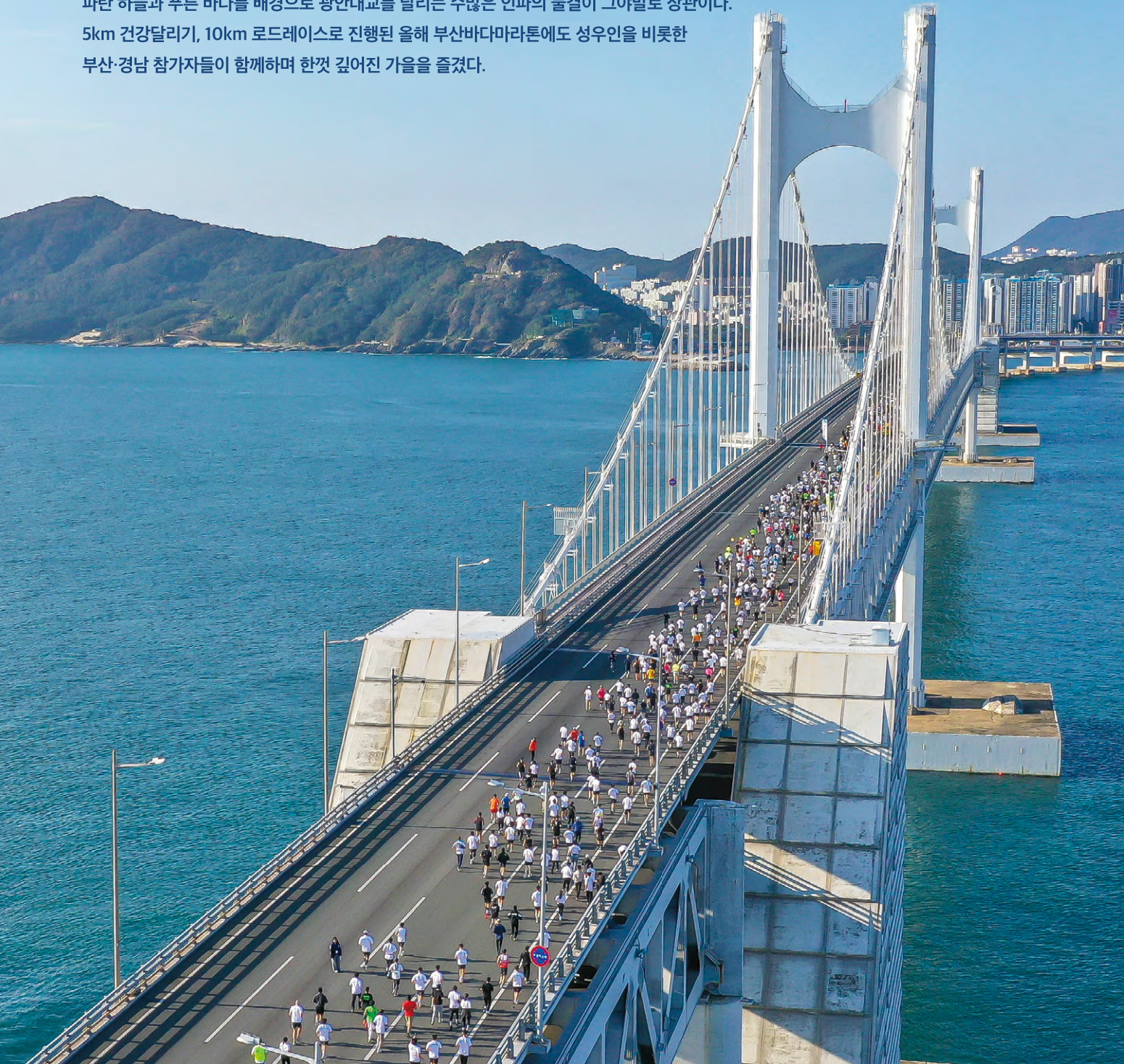
회사를 떠나 자신만의 삶을 꾸려갈 퇴직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전했다.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제2인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일본에서 노인 연령은 노화학회 기준으로 75세 이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인생의 답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며 동시에 라이프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좋은 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추 한가운데서 바다 위를 수놓다

매년 가을, 광안대교 위에서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진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광안대교를 달리는 수많은 인파의 물결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5km 건강달리기, 10km 로드레이스로 진행된 올해 부산바다마라톤에도 성우인을 비롯한 부산·경남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한껏 깊어진 가을을 즐겼다.



marathon

한마음 되어 만들어 낸

모두의 축제

코로나19 시기 언택트 마라톤대회가 이어졌지만, 정해진 코스를 많은 사람과 함께 달리는 오프라인 대회의 열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광안대교를 달릴 수 있는 '부산바다마라톤'은 특히 인기가 많은 대회인데, 올해는 전에 없이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달리기 코스에 참가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특히 많았다. 10km 로드레이스와 5km 건강달리기 사이의 출발 시간이 10분 내외이던 평소와 달리 20여 분이나 걸린 데서 이번 대회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벡스코 광장에서 5km 출발 지점까지 오르는 참가자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모습 자체가 장관이었다.

부산에서 열리는 대표 마라톤대회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우 임직원들도 모처럼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 가족과 함께, 혹은 동료와 삼삼오오 모여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성우



임직원은 500여 명. 화창한 날씨와 선선한 바닷바람이 상쾌한 주말 아침을 선사했다. 메인 코스인 광안대교 위를 오르며 펼쳐지는 풍광에 절로 한호성이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가족·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성우 임직원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갔다. 해운대 방향의 마천루와 멀리 수평선의 푸른 물빛이 오묘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는 풍경을 담으려 저마다 기념사진을 남기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동안 쌓인 잡념과 스트레스도 바람결에 멀리 날려 보낸 듯한 얼굴이었다.

한편, 봄가을로 마라톤대회가 열릴 때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봉사자와 스태프들은 이날 대회에도 어김없이 자리를 지켜주었다. 출발 전 힘찬 준비 체조로 몸풀기를 돕는 트레이너들과 벡스코 광장에서부터 출발 지점까지 대규모 인파를 인솔하고 가는 스태프들,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 사이드카, 열띤 응원을 보내주는 시민들까지. 기록을 위해, 혹은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으려는 참가자들만큼이나 대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이들의 지원으로 올해 대회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marathon

마라톤 세계 기록 2시간 벽, 이번에는 무너질까?

전통의 강자, 우승 제조기 엘리우스 킵초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21년 도쿄 올림픽 2연패의 주인공 엘리우스 킵초게는 2014년 첫 우승 이후 줄곧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현역 강자다. 그가 세운 기록은 말 그대로 현란하다.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베를린과 런던 마라톤 각 4회 최다 우승자, 역대 최고 기록 상위 6개 중 4개를 갖고 있는 마라토너. 2014년 첫 우승 이후 코로나19 발생 연도인 2020년을 빼고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킵초게는, 18번 참가한 마라톤 풀코스 대회에서 무려 15번이나 우승했다. 세계 6대 마라톤에서 건 우승 메달만 10개에 이른다. 케냐 출신의 이 우승 제조기가 가진 최고 기록은 '2시간 1분 09초'로, 2022년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웠다. 모든 마라토너가 그토록 바라마지않는 꿈의 기록 2시간을 불과 69초 넘어선다. 대회마다 그가 세운 기록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의 행보에 눈길이 모이는 이유다. 킵초게의 기록 경신 가능성을 점치는 다른 이유는 이미 그가 2시간을 통과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비공식 레이스이기는 하나, 그는 1시간 59분 40.2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한 바 있



다. 2019년 10월 12일 오스트리아 빈 프라터 파크에서 열린 '이네오스 1:59 챌린지'에서이다. 이날 레이스는 킵초게를 위해 영국 화학업체 이네오스가 후원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이어서 국제육상연맹(IAAF)의 기록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한 공식 경기에서 2~3명 허용하는 페이스메이커를 7명 동반하는 등 여러 장치를 했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2시간 벽을 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이유가 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종목에서, 인간의 한계라 여겨지던 2시간 벽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전통의 강자와 새로이 등장한 신성(新星)이 세운 최근의 기록들은, 세계 기록 경신에 한 발 가까워졌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케냐의 마라톤 신성, 켈빈 키프텀

2023년 10월 9일, 미국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이 깨졌다. 동시에 세계 마라톤계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주인공은 케냐의 켈빈 키프텀. 기록은 기존의 세계 기록 2시간 1분 09초에서 34초나 앞당긴 2시간 00분 35초 완주이다. 게다가 이 기록은 그가 마라톤 풀코스 참가 세 번 만에 내어놓은 믿기지 않은 기록이었다.

2022년 12월 발렌시아 마라톤대회로 풀코스 대회에 데뷔한 키프텀은 2시간 1분 53초를 기록하며 단숨에 킵초게를 이을 마라톤 스타로 떠올랐다. 이어 두 번째 참가한 2023년 4월 런던 마라톤에서는 2시간 1분 25초를 뛰어 역대 2위 기록을 세우더니 단 5개월여 만에 세계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마라톤 괴물이라 불릴 만한 잇따른 기록 경신 뒤에는 고강도의 훈련이 있었다. 키프텀의 코치 하키지마나는 “하루 종일 키프텀이 하는 건, 먹고, 자고 뛰는 것뿐이다”라고 하며 훈련 양을 줄이라는 조언까지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일주일에 300km를 뛴다는 극악의 훈련을 견뎌낸 노력 끝에 2시간 1분 벽을 깬 그에게, 이제 파리 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같은 케냐 출신의 전통 강자와 훈련 기계 마라톤 신성. 이 두 사람이 펼칠 선의의 경쟁이 올림픽의 꽃 마라톤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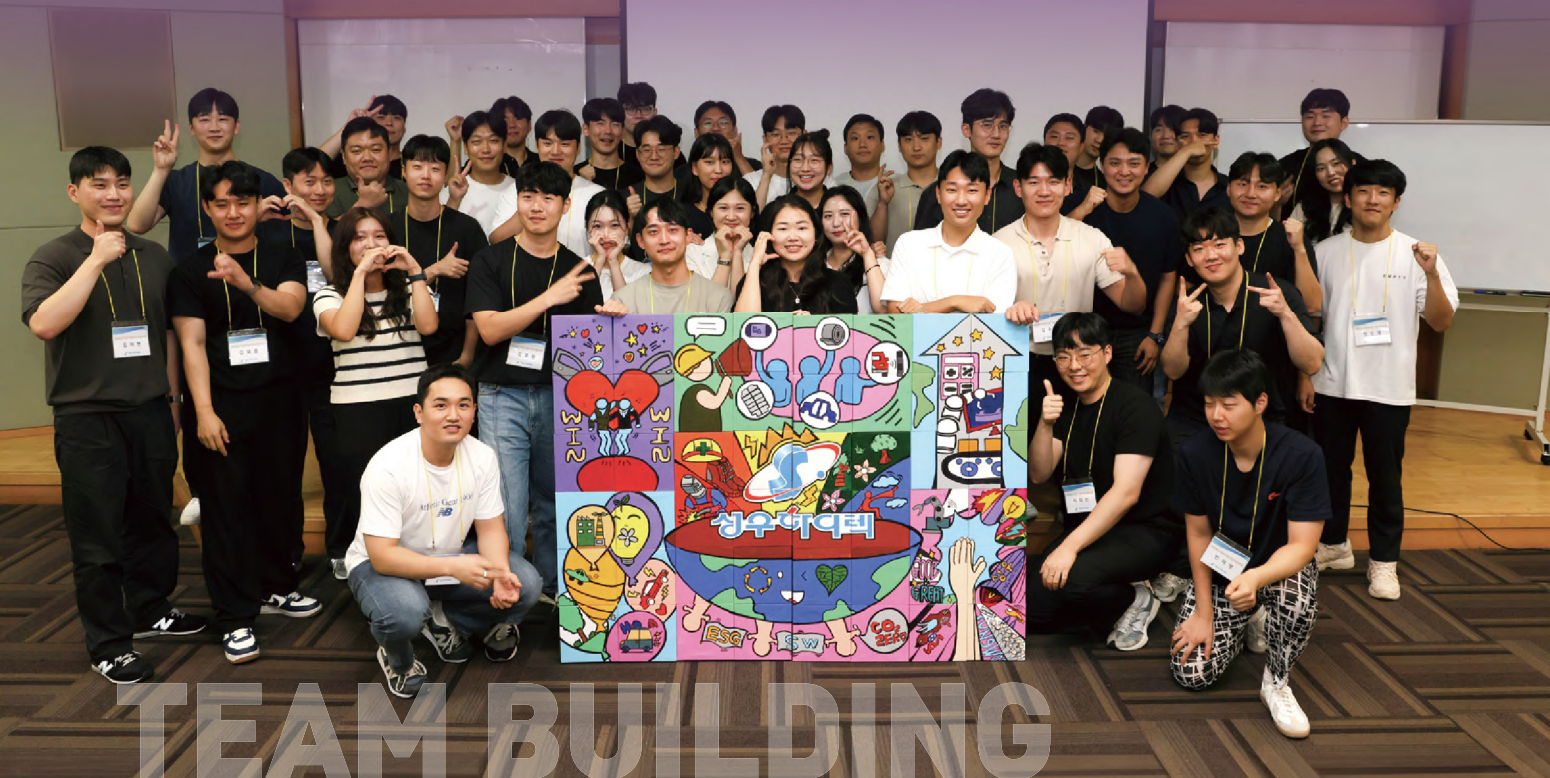
Kelvin Kiptum
02:00-35

ABB
WORLD
MARATHON
MAJORS

창의가 미래다

2023년 신입사원 역량개발과정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2023 신입사원 역량개발과정(입문교육)이 진행됐다. 43명의 신입사원은 6조로 나뉘어 직무 스킬을 배우고, 팀 빌딩과 협업 창작물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성우하이텍의 문화와 비전을 익혔다.



ChatGPT, 스마트 워크를 부탁해!

첫날 오전 부산과 양산 일대 공장 투어를 진행한 신입사원들은 연수원으로 이동해 유대감 형성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고재석 컨설턴트의 지도하에 사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팀별 교육 목표, 상호 규칙 등을 공유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본격적으로 이어진 직무 스킬 강연

에서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 및 사례 소개, 대화와 질문을 통한 실전 연습이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업계 동향 및 이슈 수집,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 등의 보조 수단으로 쓰인다고 여겨지던 ChatGPT는 알려진 것보다 쓰임새가 꽤 많았다. 경쟁사 SWOT 분석 등 마케팅과 R&D, 인사관리와 역량평가는 물론 복잡한 통계자료 분석, 엑셀 함수 요청, 코딩까지 보다 다방면에서의 활용 사례가 제시됐다.

질문과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용성이 천양지차인 ChatGPT. 신입사원들은 대화 접근법과 질문 구조(원하는 데이터의 목적·정보·요구조건 및 나열 형식)를 익히고 직접 적용해보며 스마트 워크 스킬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머리를 맞대고 예술혼을 불태우자

성우하이텍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전 팝 아트’ 드로잉은 가장 고차원적인 팀 빌딩 활동이다. 이는 ‘협업하는 에너지, 협업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팀별 소통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성우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그림으로 완성하는 아트 프로젝트다. 큰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 나가는 일반적 방식이 아닌, 팀원들이 수 조각으로 나뉜 백지 보드에 부분 그림을 그린 후 팀별로 완성된 부분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성우의 비전과 역사, 주력 분야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형성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모든 과정에는 높은 창의와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팀원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아트의 전체적인 스토리텔링과 콘셉트를 설정한 후 드로잉과 채색 등 세부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 한정된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작품인 만큼, 체계적인 분업과 시간 안배도 주요 포인트였다. 다양한 컬러로 완성된 팝 아트의 의미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공유하는 팀별 발표를 끝으로 활동은 마무리됐다.

입문교육 브이로그(Vlog) 제작을 맡은 변정연(글로벌PM팀)·조성록(신차품질2팀)·최영찬(자재지원1팀) 매니저는 신입사원들을 대표해 정성스러운 참여 후기를 보내왔다. 이들은 “취업까지 걸여온 길이 순탄치 않았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연수를 계기로 서로 더욱 공감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며 “첫날 ‘이름 빙고 게임’을 하며 웃었던 기억처럼 생기와 열정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ChatGPT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어 큰 도움이 됐고, 직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회사 내부상황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동료들의 고충도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성우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년 신입사원 역량개발과정 Vlog 제작팀 참가 후기

- ❶ 과정 첫날 공장 투어 활동은 어땠는지?
- ❷ 팀 프로젝트 참여 소감은?
- ❸ 교육 과정에 ChatGPT 활용법이 있었는데, 실제 활용해 본 일이 있는지?
- ❹ 입사 전 자기 계발을 위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 ❺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 ❻ 동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성우하이텍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적어도 1인분의 몫을 해내 인정받는
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변정연 매니저 / 글로벌PM팀

지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찾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팀원이 되어 존중하고, 존중받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조성록 매니저 / 신차품질2팀

입사 초기에는 ‘가장 고개를 많이 숙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인사드리는 신입사원의 면모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될 즈에는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칭찬이나 조언을
통해 직책에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게 하고,
동료의 고충을 듣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성우인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영찬 매니저 / 자재지원1팀

변정연 매니저



❶ —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각
공장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놀랐습니다.
특히 로봇화된 기계가 제품을 만드는 광경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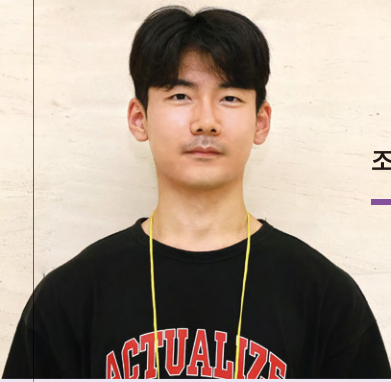
❷ — 팍아트 시간에 어떤 걸 그려야 하나 구상하는 게
힘들었지만,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 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작품에서, 훗날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신입사원들이
그려져 뿌듯했습니다.

❸ — 취업준비생 시절 자소서 소재목을 정할 때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시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시간에 엑셀과 접목해 매크로 함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새롭고 유용한 점이어서 즐겁게
배웠습니다.

❹ — 저는 오랜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외국어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우하이텍에 입사하기 전 영어 면접을
위해 일주일 동안 매일 미국인 친구와 화상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❺ — 공학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 회사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도를 높여 글로벌 PM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❻ — 연수 기간 모두 편하게 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파이팅 해봅시다 :)



조성록 매니저

- ❶ — 금형공장과 코일센타 견학은 다소 생소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공정과 모습들을 현장을 둘러보며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와 숙련된 인력 간의 시너지 효과를 목격한 것은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본받아야 할 점이라 생각했습니다.
- ❷ — 팝아트 활동을 통해 신입사원이 생각하는 성우하이텍의 이미지를 구상하고 표현함으로써 동기분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성우하이텍을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❸ — 재학 기간 중 ChatGPT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❹ — 품질 직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무 교육을 통해 품질에 대해 배웠고, 취업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 ❺ — ChatGPT 활용 교육 같은 실용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 ❻ — 안녕하세요, 동기분들. 연수원에서 갑작스러운 Vlog 촬영에도 거리낌 없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하이텍에 입사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과정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최영찬 매니저

- ❶ — 사진으로 보던 슬리팅 공정과 레이저 용접을 직접 보며, 성우하이텍의 독보적인 차체 생산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류 자동화 기술을 보며 작업자의 노동 피로를 줄일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 ❷ — ‘이름 빙고 게임’이 인상 깊었습니다. 훗날 업무 협력이나 요청 시 이름 빙고 게임 중 웃으며 인사했던 기억처럼 생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❸ —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를 뉴스로 접했기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단순히 호기심 해결용으로 썼지만, 정보 검색과 엑셀 편집에 굉장한 도움을 받고 놀랐습니다. 잘 선별하고 활용한다면, ChatGPT가 서툰 신입사원의 멘토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❹ — 풋살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습니다. 혼자서라도 야외에서 보내는 취미가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❺ — 자재 구매 직무는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이 많고,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거시적으로 업계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을 가지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부서 내 소통책 역할을 하는 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❻ — 취업까지 순탄치 않았던 것을 알기에, 연수 기간 중 동기분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Vlog 속에 모두의 행복한 추억만 담아주고 싶습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환한 미소와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암흑 속 맞잡은 손, ————— 한 줄기 빛이 되어

2023년 성우하이텍 계층별 교육

오감이 찢릿찌릿 예민해 온다. 조그만 소리에도 귀는 쫑긋해지고, 열은 먼지 냄새에도 코를 킁킁댄다.
 긴장감에 연신 마른 입술을 적시고, 온몸의 잔털도 모두 곤두선 듯하다. 겨우 눈 조금 안 보일 뿐인데...
 아니, 무려 앞이 안 보인다! 앞이 보이지 않은 채, 광활한 평지도 아닌 굴곡진 길을 걷는 경험을 언제 해보겠는가?





다시 어스름이 깔린 초저녁의
경주 야외 정원. 이곳에서는
‘신뢰의 게임’이 한창이다.

어두운 들판에서 펼쳐진 ‘신뢰의 게임’

1859년 6월 30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 줄타기 곡예사인 찰스 블론딘(Charles Blondin)이 48m 높이의 로프 위로 폭포를 건너고 있다. 구름처럼 모인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고, 한 발 한 발 내딛던 블론딘이 마침내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 박수와 찬사가 쏟아진 것도 잠시, 블론딘이 관중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연하죠!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관중들의 대답. 블론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관중들의 침묵.

다시 어스름이 깔린 초저녁의 경주 야외 정원. 이곳에서는 ‘신뢰의 게임’이 한창이다. 실내 강연장을 벗어난 교육생들이 눈을 감은 채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 게임은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서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눈 뜬 리더(leader), 다른 한 사람은 눈 감은 팔로워(follower)가 되어 리더의 보호 아래 팔로워가 실내외를 걸어보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게임 시작 전, 강사가 조별로 사인(sign)을 정하라는 간단한 안내만 한다.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그냥 등 두 번 두드리면 조심하는 걸로 하시죠?” 게임이 시작됐다. 눈을 감고 걸어보니 한 걸음 떼기도 버겁다. 리더는 쑥스러운지 오른쪽 팔꿈치만 감싸 쥐고, 눈을 감은 팔로워는 덜덜 떨며 조심스럽게 걷는다. 주변 소리는 왜 이리 크게 들리는지, 눈 감은 내 곁에서 모두가 장난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겨우 몇 걸음으로 웬 호들갑이나 싶겠지만… 한번 경험해보시라, 거짓말인지.





‘아, 리더가 나를
보호하는 것에
진심이구나!’
이 순간부터
팔로워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보폭도
성큼성큼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리더에 대한 신뢰가
팔로워를 용감하게
만든다.



“저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나이아가라. 아무도
지원자가 없자, 블론딘이 관중 속에서 한 명
을 지목한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난 당신을 믿습니다. 가까이 당신 등에 업히
겠습니다.”

블론딘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답한 남자를
업고 다시 로프 위에 올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

다시 경주. 참가자들은 이내 후회가 밀려온다.
더 세밀하게 사인을 정할걸... 조심해야 할 것
은 다양하다. 평소 신경도 안 쓰던 4~5cm 남
짓한 턱에 팔로워가 걸려 넘어질 듯하다. 무릎
높이의 화단을 오를 때, 50cm 되는 도랑을 건

널 때에도 고작 등을 두 번 치는 것이 전부다. 답답함이 느껴지는 리더의 손
끝에 팔로워는 더욱 두려워져 이제는 한 뼘도 겨우겨우 나아간다.

그때였다. 팔꿈치만 잡고 있던 리더가 팔로워의 어깨 전체를 감싸 안는다.

‘아, 리더가 나를 보호하는 것에 진심이구나!’ 이 순간부터 팔로워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보폭도 성큼성큼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잠시 후, 리더가 손을
떼고 스무 걸음을 걷게 하는데, 이때도 팔로워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리더는 어떠한 위험에도 나를 보호할 것이다. 나의 리더는 나를 꼭 보호해 줄
것이다. 리더에 대한 신뢰가 팔로워를 용감하게 만든다.

한편, 남자를 업은 블론딘의 로프 건너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던 블론딘은 마침내 남자를 업고 로프 건너기에 성
공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관중들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블론딘에게 업혀 폭포를 건너 사람은 해리 콜
코드(Harry Colcord)로, 블론딘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리더의 약속, 팔로워의 믿음

신뢰의 본질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 말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해리 콜코드가 블론딘의 매니저로서 수년간 그를 지켜보며 쌓아 온 신망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신뢰를 발휘하게 했듯, 어둠의 순간에도 온몸을 감싸 안는 리더의 행동이 팔로워의 신뢰를 형성한 것이다. '신뢰 없는 리더십'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리더가 아무리 스마트하고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팔로워들이 '리더를 믿고 따라야겠다'는 신뢰가 없으면 '완장'을 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에 있다는 신뢰의 본질은 리더에게도 통용되는 말이며, 리더는 팔로워를 보호하고 성장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리더가 앞날을 내다보는 통찰력까지 있다면 더욱 팔로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신뢰의 게임에서 여러 가지 사인의 필요성을 알아채는 것과 같이.



‘말보다 행동’에 있다는 신뢰의 본질은 리더에게도 통용되는 말이며, 리더는 팔로워를 보호하고 성장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2023년 성우하이텍 계층별 교육이 24차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신뢰의 게임을 완수했다. 신뢰할 수 있는 리더, 신뢰를 보낼 줄 아는 팔로워들로 가득 찬 성우하이텍이 되길 바란다. 



‘4세대 공존’을 위한 차세대 리더십

2023년 승진자 리더십 과정

『90년생이 온다』로 대한민국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임흥택 작가는 지난해 말 『2000년생이 온다』를 출간하며 급변하는 시대를 새삼 깨우치게 했다. 지금의 직장 사회는 전무후무한 ‘4세대 공존의 시대’로 요약된다. 멀게는 대거 은퇴를 앞둔 전후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60년대와 70년대 후반 사이 태어난 ‘X세대’, ‘MZ세대’로 통용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다. 시대는 자꾸만 우리에게 초유의 4세대 공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복안이 있는지를 묻는다. 카리스마일까, 포용적 리더십일까? 혹은 소통 기술, 추진력일까? 성우하이텍은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리더십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짚어내며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소통과 협업, 그 양날의 검에 대하여

교육 2일 차인 10월 18일, 경주 드림센터 강당 한복판에 마련된 화이트보드에는 얼마 전 책임매니저 직급을 달게 된 승진자들이 붙인 포스트잇이 빼곡했다. 주제는 조별로 ‘소통과 협업의 장단점’ 적어보기,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5가지는 무엇인지’다. 10개 조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도출한 키워드들은 비슷한 듯 다양했다. 장점으로 빠른 업무 처리, 화합, 업무 분담 등 원활한 진행, 근로의욕 고취, 친근함으로 인한 시너지 폭발, 사내 분위기 융화, 회식, 성과 상승, 목표 조기 달성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단점들은 이 모든 장점과 완벽히 대척점에 선 키워드들이었다. 목표 달성의 어려움, 빠른 업무 진행 불가(의사결정 정체), 불화 발생, 효율 저하, 방향성 상실, 조직 이기주의의 심화...

5가지 우선순위로는 정확한 업무 분장과 지시, 건전한 피드백, 공정한 성과 분배, 경청의 자세, 리더십 존중, 주인의식,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허용, 책임감과 희생정신, 부서 간 원활한 업무 이해 등이 꼽혔다. 조직을 와해시킬 수도, 결속시킬 수도, 업무 속도를 높일 수도, 효율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 빛과 그림자가 분명한 '소통'과 '협업'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결정된다. 승진자들은 기성세대인 임원과 신세대인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책임지는 가교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분장은 물론 조정자로서의 역량 발휘, 평가와 피드백 제공에 있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금요일 밤의 응급실’로 체험해본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오후 시간 진행된 협업 보드게임 ‘금요일 밤의 응급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직장이나 조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대응 역량을 점검해보는 과정이었다. 접수대(Reception)와 응급실(Emergency), 중환자실(Critical care), 수술실(Surgery), 스텝 다운(Step-down, 회복기에 접어드는 환자)을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병상) 등으로 구역이 나뉜 응급센터에서 환자를 들이고, 치료하고, 내보내며 하룻밤 동안 병원을 운영해보는 게임이다. 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비용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지가 관건이다. 환자를 대기시킬 것인지, 비용을 들여 의료진을 추가 투입할 것인지 순간마다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게임이 시작되자 조별로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환자 카드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토론하기에 바빴다. 금요일 밤이 지나 긴박하게 돌아가던 타이머가 멈추고, 모든 조가 운영 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받을 차례였다. 퀄리티 에어와 비용을 수치로 산출하자, 각 조원들이 어떤 목표에 비중을 뒀는지 대략 짐

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김명식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게 지정한 점은 ‘대부분의 조원이 각 의사결정에 투입되는 비용을 철저히 분석,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추가 의료진 투입은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눈앞의 손실을 우려하며 응급실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게임을 마무리한 후 각 조는 둥글게 모여앉아 진행 소감과 현실에서의 적용 문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원인, 성과 개선을 위해 시도한 전략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승진자 리더십 과정은 책임매니저로서 새로운 숙제를 짚어준 성우인들이 혁신적 사고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협업의 핵심 가치를 재정리하고 나침의 방향을 설정해 보는 시간이었다. 성우하이텍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간관리자이자 조정자로서 늘 새로운 구조를 고민하고, 생각의 전환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할 책임매니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신입사원 현장실습

서창공장을 가득 메운 열기와 땀방울



10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4차수에 걸쳐 신입 및 경력사원들의 현장실습이 진행됐다.
올해도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돌아갔던 현장은 단연 성우하이텍을 뒤흔치는 '심장'이었다.
차수 당 2주간 진행된 현장실습에서 신입사원들은 현장의 활기찬 얼굴과 소리에 함께 녹아들며
생산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땀과 가치를 배워갔다.



시끄러운 현장 속 '소리 없는 싸움'

늦가을이 절정을 달리던 11월, 서창공장의 조립반 현장을 찾았다. 공장 한구석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안전 장비를 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신입사원들이 반겼다. 현장에서는 생산직 직원들과 실습 중인 사원들이 뒤섞여 펜스 너머로 공정 업무에 한창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작업 중인 직원들의 머리 위로 자동화 장비들의 팔이 바빠 움직였다. 간간이 보이는 불티와 요란한 기계음 사이에서 사원들은 쉽사리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각자 위치에 선 작업자들은 귀마개를 낀 채 멘토에게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작업량을 채워 나가며 집중력과 사투, '소리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정 책임자이자 신입사원들의 멘토이기도 한 반장들은 현장을 분주히 오가며 사원들을 지도했다. 아직은 다소 낯선 환경에 사원들이 하루빨리 적응하고, 과한 긴장이 실수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사원들은 멘토의 격려 속에서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실습 참가자 중 한 명으로서, 지난해 인사노무팀에 새롭게 합류한 여성규 매니저는 현장에서 느낀 수많은 소회를 생생한 실습 후기에 담아 전해 왔다.



함께 땀 흘리며 팀워크를 다졌던 나날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공채 경력직에 입사한 인사노무팀 여성규 매니저입니다.

따뜻했던 공기가 차갑게 바뀌던 가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현장실습을 했던 날들을 떠올리니 글을 쓰는 이 순간도 굵은 땀방울로 가득 찼던 NX4 라인의 로봇 소리와 반장님, 조장님, 그리고 공정책임자분들의 목소리 한 마디 한 마디가 스쳐 지나갑니다.

실습 첫날인 10월 30일, 조립 5반에 배정받아 간단한 조회에 참여했습니다. 공정책임자분들의 무심한 눈빛과 무뚝뚝한 반응 속에서 서늘한 인사를 나누었던 첫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각 공정에 투입되어 교육을 마치고 공정책임자분들과 함께 정신없이 작업에 매진했는데, 김영환 공정책임자님의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규 씨, 식사 시간이에요. 빨리 밥 먹으러 가





요.” 첫 조회 시간에 느낀 인상이 무색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고, 동료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는 꿀맛 같았습니다.

첫인사 때 느꼈던 첫 감정들이 무색할 만큼 무심함이 따뜻함으로, 무뎠음이 세심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하나하나 챙겨 주시는 모습에 실습 전 머릿속을 덮쳤던 걱정들이 쏘아 하고 씻겨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갔을 땐 옆 사람이 빈자리를 메우고, ‘너’와 ‘나’의 업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팀워크 정신을 몸소 체험하며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무 시간 사이 휴게 시간에 서로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답하며 동료 간에 더욱 유대감과 소속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업무뿐 아니라 이런 소통 기회들도 현장실습이 주는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실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같은 성우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성우인이다’는 소속감을 맛볼 무렵, 김성기 반장님께서 “성규야,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현장실습이 끝났습니다.



여성규 매니저 / 인사노무팀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했던 현장 실습이었지만, 잘 적응할 수 있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혹여나 작업 중 다치진 않을까 걱정해 주신 김성기 반장님, 박창균 조장님, 김영환 공정책임자님 덕분에 사고 없이 무사히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응원해 주신 인사노무팀 선배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성우하이텍의 진정한 일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생각에 더욱 뿌듯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고마웠던 감정들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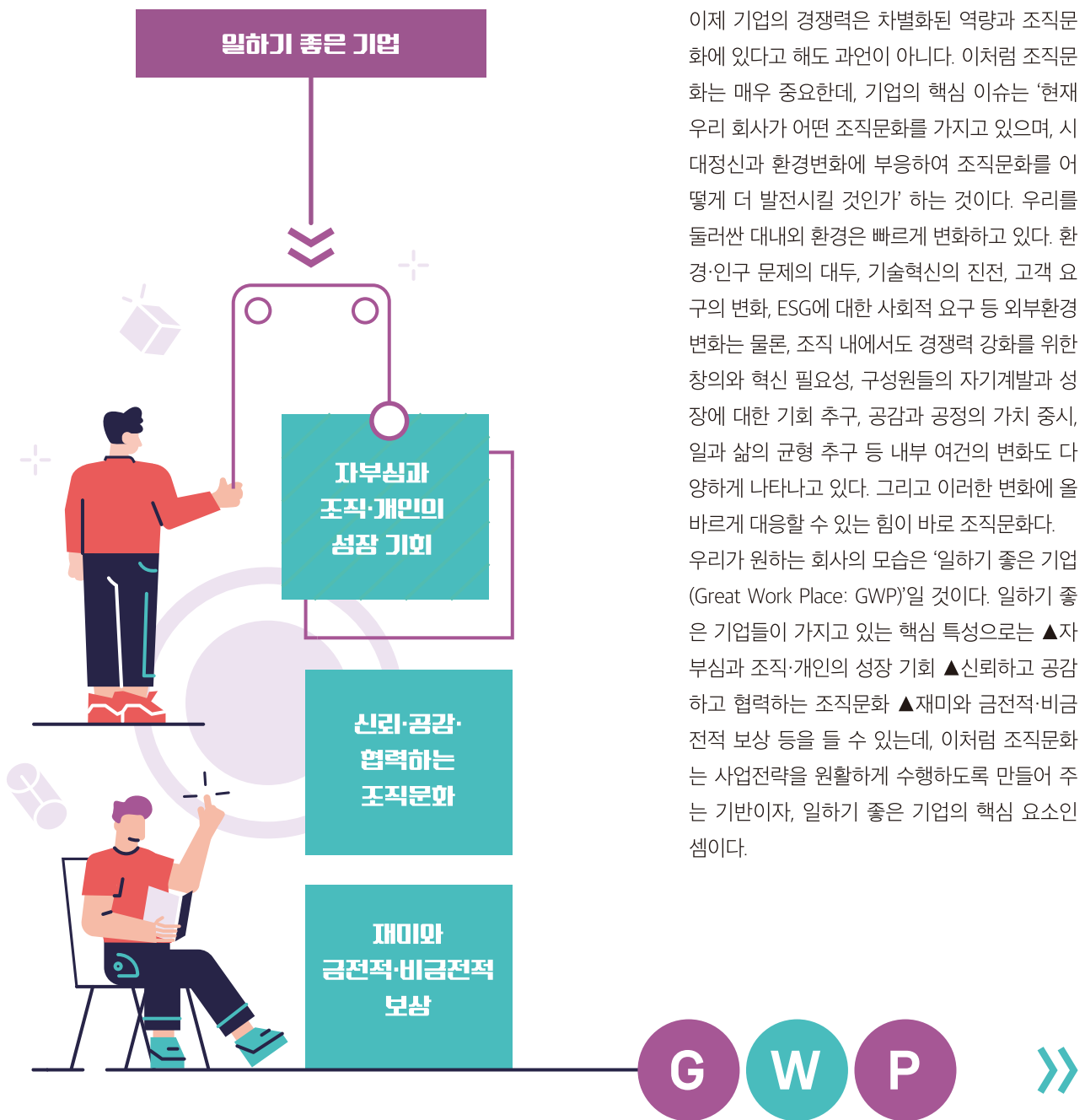
2017년까지 포드자동차의 CEO를 지냈던 마크 필즈는 “문화가 전략을 아침 한 끼로 먹는다(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라는 말을 인용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많은 CEO들이 전략과 문화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특히 전략보다 문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명, 사업, 사람, 그리고 문화

.....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사명’을 가지고 형성·운영되고 있으며, 그 사명을 실현하는 프로세스나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전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핵심 요소이자 실행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조직의 사명과 비전, 사업 특성과 프로세스, 그리고 CEO와 조직구성원들의 의식과 축적된 행동 양식이 복합적으로 특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또 조직문화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진화한다. 조직의 문화는 마치 컴퓨터의 운영시스템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의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이고, 여러 기능이 수행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역량과 조직문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조직문화는 매우 중요한데, 기업의 핵심 이슈는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정신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조직문화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인구 문제의 대두, 기술혁신의 진전, 고객 요구의 변화,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외부환경 변화는 물론, 조직 내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와 혁신 필요성, 구성원들의 자기계발과 성장에 대한 기회 추구, 공감과 공정의 가치 중시,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 내부 여건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조직문화다. 우리가 원하는 회사의 모습은 '일하기 좋은 기업 (Great Work Place: GWP)'일 것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특성으로는 ▲자부심과 조직·개인의 성장 기회 ▲신뢰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재미와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조직문화는 사업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기반이자, 일하기 좋은 기업의 핵심 요소인 셈이다.

창의·도전적이고 협력·배려하는 조직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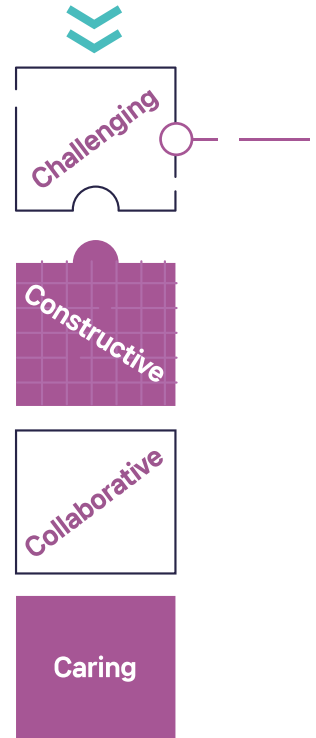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이고, 조직 내의 사람과 프로세스, 프로토콜에 녹아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지속성장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보람, 행복이 있고, 서로 공감하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지속성장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의 조직문화는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창의적이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Challenging) 조직 분위기이다.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시행착오나 새로운 도전에 따른 구성원들의 실패를 수용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건설적인(Constructive) 문화이다. 물론 실패로부터 학습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늘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피하는 무사안일주의자들이 더 잘 대우받는 문화는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셋째는 조직 내외부의 의사소통 과정에 장애물이 없는 분위기, 서로 돕는 협력적인(Collaborative) 문화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직원에 대한 평가 항목에 '다른 부서가 더 성과를 내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도 포함한다. '조직 간 담쌓기'가 아닌 상호협력의 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로 돕는(Caring) 조직문화이다. 특히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늘 긴장감 속에서 활동한다. 그렇지만 조직구성원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 분위기는 중요하다. 때로는 창의적이고 과묵한 사람의 엉뚱한 생각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실 모든 조직에서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창의적이고 과묵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배려하는 조직이 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배려하는 조직



경영진의 존중과 이해가 뒷받침되는 건설적 조직문화

.....

조직문화의 변화는 CEO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고문은 그의 저서 『초격차』에서 '도전, 창조, 협력'을 혁신 조직의 성공 DNA로 제시했다. 의도된 '도전'이 없는 조직은 발전이 없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류와 기업은 '창조' 없이는 성장할 수 없으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업 경영의 지혜에서 나온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첫째는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솔선수범, 진정성이다. 조직의 성장과 구성원들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최고경영진의 진정성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는 공감이다.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소통이다. 소통은 상호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구성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진정성과 공감, 소통에 기반을 둔 도전적이고, 건설적이고,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마음에 설렘을 만들고 조직에 신바람을 불러온다.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참여(Engagement)도 높아진다.

조직문화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

MIT의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들의 퇴직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문화로 나타났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문화라고 하면 보통 직장 내 차별이나 무시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지적한 대로, 관계와 결과의 균형, 규칙과 자유로움의 위험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원 간 배려하고 협력하는 관계(Relationships)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매몰돼 업무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문제를 기피하는 것은 조직을 병들게 한다. 아울러 기업은 창의·혁신의 조직문화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결과(Results)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결과만을 앞세운 과도한 성과주의와 채찍질,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 성우하이텍의 기업 비전인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는 바로 이러한 기업문화와 균형 감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규칙(Rules)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료제로는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조직 내의 자유로움과 다양성, 포용성은 필요하나, 조율이나 협의를 무시하는 지나친 자유분방함의 위험(Risks)은 관리되어야 한다.

기회 포착·도전·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 성장(Business Growth)'과 공감·권한 위임·역량 개발을 통한 '사람 성장(People Growth)'이 함께 하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회사, 그리고 창의·협력·배려의 기업문화가 정착된 일하기 좋은 회사를 향한 성우하이텍의 도전을 응원한다. 🌈



글 · 배종태

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혁신및기업가정신연구센터장 /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공학한림원 정회원, KIAT 사외이사
전) 중소기업학회 회장 /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교수 / 태국 아시아공과대학(AIT) 교수
/ LG하우시스·포스코경영연구소 사외이사

저서 『사회가치경영의 실천 전략』,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굿 비즈니스 플러스』, 『이토록 신나는 혁신이라니』 등
삼성전자·LG화학·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아모레퍼시픽 등 출강
《대구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 등에 기업가정신·혁신·경영 칼럼 연재



아름다운 그대에게

무한 경쟁 시대의 폐해는 단순히 직장생활의 피로도를 높이는 데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갈수록 심화하는 삭막한 사회구조가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적 상황을 당연시하게 하고, 상대와 나의 거리를 넓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 곳곳에 녹아드는 감사와 배려 문화는 이 시대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6년 1월 동료 간 칭찬 문화를 싹틔우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자 사내 칭찬 제도인 'S-Thanks'를 도입했다.
8년간 명맥을 이어온 S-Thanks의 운영 현황과 함께 2023년 주요 칭찬 결산 내역을 공개한다.



따뜻하고 열정적인 당신,
칭찬해요♥

성우 S-Thanks의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사내 그룹웨어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동료의 성과나 장점을 담은 칭찬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게재된 칭찬 게시글은 매월 취합되며, 칭찬받은 동료에게는 소정의 동료 보너스(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월 2회에 한함)가 지급된다. 접근은 사내 그룹웨어 S-Thanks 게시판과 S-Thank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가능하다. 칭찬글이 게재되면 다른 동료들이 댓글로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

구성원들의 불편과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상부 승인 절차도 두지 않았다. 성우하이텍은 2016년 4월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고,



칭찬 릴레이 'S-Thanks' 2023년 결산 대공개

검색



S-THANKS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 개선안을 찾고, 콘텐츠 및 운영 규칙을 보충해 나갔다.

도입 초기에는 전체 대상자 중 20%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좋아요와 댓글 기능도 활발히 운영됐다. 해당 기능은 다른 동료들이 칭찬에 적극 공감을 표함으로써, 칭찬받은 임직원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S-Thanks는 동료의 성과나 장점, 행실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간단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창구가 되며 칭찬 문화 정착에 기여했고, 상급자 칭찬에 대한 부하 직원의 부담을 덜어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을 이끌었다.

월 평균 칭찬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700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해 왔다. 인사노무팀은 상호 격려가 업무 협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칭찬 사례와 발생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참여율 향상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장 및 홍보하는 협조전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법 교육도 실시했다. 월별로 가장 많은 감사를 주고받은 성우인들의 명단과 유의미한 칭찬 내용을 선정, 공개해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보상 체계 다양화 및 팀 간 칭찬 기능 추가, 줍깅·플로깅 등 오프라인 S-Thanks 행사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제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제도의 저변을 넓히고자 노력해 왔다.

S-Thanks

2023년
주요 칭찬 내용

프레스반(2공장) | 이우람 기장



자재지원반(EV) | 김용진 기장

업무적으로 전화하면 늘 바쁘신 와중에도 받게 받아주시며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앞장서며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배우고 나아가길 테니 늘 변치 마시고 건강 유의하면서 일하세요 ^^

프레스가공반 | 김도경 기장



프레스가공반 | 김주년 기장

김주년 기장은 항상 성실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번 공구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공구 DIY 제작으로 정리 정돈 및 사용이 편하게 만들어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일하기 좋아졌어요.

설비기술반 | 강동완 반장



보전1팀 | 이재봉 매니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엇그제 같은데 같이 일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처음 봤을 때는 과연 같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초심 잊지 말고 룹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이팅!

아산생산기술팀(EV) | 김보경 매니저



지그보전반 | 박종명 반장

항상 바르고 고운 말 써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온순함과 배려심으로 항상 친절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형기술팀 | 박근우 책임매니저



신차품질2팀 | 송민찬 매니저

DN8 F/L 차종을 만들면서 뒤늦게 합류했지만 이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적응하고 잘 도와준 덕에 차종이 문제없이 생산되고 있어 이에 감사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다음 차종 개발 시에 만나게 되면 이번 차종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길 기대합니다. 차종 개발한다고 고생했습니다 ^^

물류반 | 이종용 기장



자재지원반(EV) | 이희재 기장

희재가 선장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칭찬 일색이어서 미소를 짓게 하더구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면서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 나아가길 바란다. 파이팅!

조립1반(아산) | 권성진 반장



EV선행개발팀 | 임민수 연구원

QZ 유럽 법규 사양 개발 업무로 처음 만나 뵈었는데, 참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볼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산총무팀 | 이수승 책임매니저



장비보전반(2공장) | 김태기 반장

업무 중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든든하게 생각되고 더욱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립1반 | 최성만 반장



공정기술반 | 이상도 기장

언제나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이상도 기장을 칭찬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개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하고 건강 잘 챙기길 바랍니다.

성우하이텍 아메리카 | 최정화 책임매니저



생산관리팀 | 박보안 책임매니저

미국 공장에 장기파견 오셔서 언어,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원을 매끄럽게 리드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최근 공장 내 큰일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조립반(EV) | 백경수 기장



품질보증반 | 장민웅 기장

품질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시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웅 기장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공법혁신팀 | 서지연 매니저



생산기술2팀 | 정다운 매니저

다운 매니저님! 인도 출장도 열심히 다녀오시고 국내 업무도 성실히 하는 모습 칭찬합니다! 🍌 면접 같이 본 동기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든든하네요 🍌 연말도 파이팅입니다~

자재지원반(EV) | 김용진 기장



조립반(EV) | 정기수 조장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타 부서 원보다는 동생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챙겨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동생들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차품질반 | 김경호 기장



조립2반 | 하중민 조장

조립 라인이 익숙지 않아 이리저리 해결 못 하고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덕분에 잘 해결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물류관리팀 | 강동일 매니저



신차품질반 | 김경호 기장

최근 JX, S/B, RR, DR 생산이 늦어져 품질 검사하는 일정이 빽빽했는데 이해한다며 고생하라는 기장님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일하다 보면 바빠서 내일 먼저, 상대방 일정에 대해 무심해지는데, 기장님 말씀 덕에 또 하나 깨닫는 것 같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기장님 ㅎㅎ 건강하시고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ㅎㅎ

EV선행개발팀 | 최수영 책임연구원



신차품질1팀 | 공진영 책임매니저

최근 인원 관리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까지 설치며 속앓이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조율점이나 방안을 찾기가 힘들어 조언을 구했는데, 기대 이상의 명쾌한 해법 제시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막상 말씀 나누고 나니 왜 그렇게 고민했었나 스스로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물론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늘 영양이 있는 조언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



언론이 주목한 성우하이텍 노사화합의 복지문화 톺아보기

성우하이텍은 1977년 창사 이래 단단한 믿음과 굳건한 신뢰로 화합의 기업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는 오일쇼크, IMF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회사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직원들에게 화답했다. 노사 화합과 믿음에 기반한 이 같은 성우하이텍의 행보는 지난해 「부산일보」에서 기사화되며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 주기도 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성우하이텍 노사화합 복지문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6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제 24093 호

비즈

부산일보

성우하이텍, 노사화합 복지문화로 귀감

엠펙 칭찬 컵 커피 쿠폰 제공
호프데이·조기퇴근 제도화 호응

부산 향토기업이자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주)성우하이텍이 노사화합 복지문화를 이뤘고 있다. 임직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장려하고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한 복지를 실천하는 회사를 자랑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임직원 소통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

다. 대표적으로 2016년 자체 7월만 사내 애플리케이션 'S-Thanks'를 통해 사내 칭찬 문화를 만들고 있다. 직원은 매월 2명에게 엠펙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직원을 칭찬할 수 있다. 칭찬을 받은 직원에게 칭찬 1개당 회사가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앞서 2007년부터는 전 임직원에게 '호프데이' 카드를 제공한다. 회사 밖에서 동료나 가족이 시간을 보낼 때 생맥주를 한잔할 수 있는 자리를 회사가 마련해 준다는 취지다. 매월 2만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 준다. 성우하이텍 전국 사업장 인근의 호프집, 식당, 카페와 연계해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여름에는 '나이트 제즈 카페' 이벤트를 열었다. 국내 6개 성우하이텍 사업장에서 2주 동안 운영했다. 2교대 현장 직원을 위해 저녁 시간에 제즈 음악과 함께 바리스타의 핸드 드립커피와 각종 음료를 제공했다.

성우하이텍 양산 서항사업장 5층 야외 정원에서 지난 4월부터 5주 동안 '야외 정원 버스킹' 공연도 열렸다. 매주 다른

가수 5팀을 초청, 점심 시간에 임직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Nice Friday(나이스 프라이데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금요일마다 오후 5시인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한다.

2017년 개원한 성우어린이집 역시 직원 만족도가 높은 복지의 하나다.

성우하이텍 관계자는 "성우하이텍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는 경영 이념에 따라 직원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이 모두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지난 4월 성우하이텍 양산 서항사업장 5층 야외정원에서 '야외 정원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성우하이텍 제공



WORK LIFE

생맥주 한 잔에 담은 마음... 호프데이 카드

호프(Hof, 생맥주) 한 잔을 두고 두런두런 오가는 이야기 속에 시나브로 쌓여가는 정(情). 소통이 뭐 별 게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오해는 풀리고, 이해는 깊어지고...

그럼, 호프는 언제 하는가? 가족, 친지,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거하게 1차를 거치고도, 못내 아쉬운 마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맞으면 2차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호프이다. 호프(hof)는 소통을 호프(hope,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개체이다.

‘호프데이 카드’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먼저 가족, 친지,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호프 한잔 자리를 만드는 데 회사가 벌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 소통하고자 하면, 그 깊이를 더해주는 카드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호프데이 카드’는 매월 직원들에게 20,000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호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카페, 식당으로 확대하고 있다.

‘호프데이 카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회사 인근 소상공인들과 연계하여 가게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던 가게들이 ‘호프데이 카드’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감사의 말도 듣게 되었다.



열린마음 사랑나누기 성우하이텍 일일호프(2007)

문화의 향기가 더해지는 일상 나이트 재즈 커피차& 야외정원 버스킹

지난해 봄과 여름에는 ‘자율’과 ‘쉼’, ‘소통’과 ‘배려’의 가치가 녹아 있는 특별 이벤트들이 성우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먼저 봄별 따뜻해지던 4월, 서창 본사 5층 야외 정원에서 “야외정원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행복 일터를 만들기 위해 5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모두 다섯 팀(지나 송, D.Work, 오혜림, 오느린 윤희린, 부산세레나데팀)이 참여하여 매주 점심시간을 멋들어진 공연으로 채워주었다. 회사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공연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음악에 맡기며 봄날의 정취를 한껏 즐겼다. 일상의 긴장을 풀어주고 한 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준 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였다.



야외정원 버스킹



나이트 재즈 커피차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가 추억 한 모금을 선사했다. 국내 6개 사업장에서 2주간 운영된 “나이트 재즈 커피차” 이벤트이다. 2교대 현장 직원들의 저녁 시간에 맞춰 전문 바리스타가 제조한 핸드드립 커피와 각종 음료를 마련한 것인데, 은은한 재즈 음악이 곁들여졌다. 저마다 음료를 손에 든 직원들은 연예인들만 받는다는 커피차 앞에서 잠시 유명인이 된 듯한 기분도 만끽하며 바쁜 일상에 찾아온 여유를 즐겼다.

일과 생활의 균형 속 찾은 여유 성우어린이집&NICE FRIDAY

2018년 이른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 시대가 열리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기계발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를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성우하이텍은 실제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워라벨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에 개원한 “성우어린이집”은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양산시 서창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지상 2층에 보육실 3개소, 강당, 유희실, 원장실, 상담실, 식당, 놀이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유명 전문 보육지원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임직원 자녀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 아이를 맡긴 직원들이 입 모아 육아



에어 앰블런스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부담이 줄었다고 만족감을 표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Nice Friday”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Nice Friday는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조기 퇴근 제도이다. 평일 5시이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인데, 이로써 직원들은 금요일 저녁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팀/회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제조업의 특성상 근무 시간의 단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성우하이텍은 직원들의 자율성을 고양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여러 업무에 도입하면서 주말 연휴의 시작을 앞당겼다. 향후 시행 경과에

따라 퇴근 시간을 더욱 앞당겨 직원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주말을 선사할 계획도 있어, 기대를 모은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성우하이텍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 시기에는 출장 차 해외를 찾은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고가의 에어앰블런스를 띄워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업계에 모범이 되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선제적으로 격리 시설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부득이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기호품과 생필품이 담긴 박스를 직접 배송하여 감동을 주었다.

또한 임직원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내에 탁구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실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노사화합 복지문화가 꽃피운 성우하이텍 임직원의 패 관창은 워크라이프.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성우하이텍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딩동~ 성우 산타가 왔어요!”

성우하이텍 어린이집과 함께한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12월 21일,

오전 활동을 마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에

벨 소리가 울렸다. ding동~ 벨 소리의 주인공은?!

빨간 옷에 흰 수염,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멘

성우 산타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로 분한 총무팀 신창훈 매니저의 인사에 아이들이 “와” 하며 소리 높인다.


3~4세 동심의 세상에서 산타는 여전히 신기하고도 특별한 존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쏟아지는 환호와 애정 가득 담긴 눈빛을 보니 이를 실감하게 된다. 아이들의 열렬한 환대 후에 한 아이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정말 산타가 된 듯 뿌듯함마저 느껴진다.

이어지는 시간은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이 준비한 공연 시간. 루돌프 옷을 입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입 맞춰 부르는 캐럴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는다. 산타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선물 나눔 시간! 빨간 선물 보따리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선물에 아이들의 얼굴 가득 웃음이 퍼진다.





이날 성우 산타의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방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임직원의 자녀들에게 산타와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기획되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벤트는 지난해와 같이 아주 성공적이었다.

성우하이텍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 개원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앞으로도 성우하이텍은 임직원 자녀들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체력 (어서) 오고, — (잘) 가고!



헬스 트레이너 핏블리 초청 강연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 운동은 끝”, “헬스장이 반경 1km 안이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 직장인들이 운동 시작을 다짐할 때, 서로 건네는 조언들은 우스개 같지만 상당히 현실적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조건으로 ‘직주근접’이 꼽히듯, 운동 공간이 일상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 더없이 만족스러운 일이다. 아산성우하이텍은 2023년 봄 사내 체력단련실을 새단장하며 ‘운동에 진심’인 성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11월에는 헬스 트레이너 겸 인기 유튜브버인 핏블리가 서창공장에 방문해 직장인들을 위한 유용한 운동 팁과 건강 지식을 전수했다.





체형 분석·부위별 운동·식단까지, 성우인 맞춤형 건강 팁 전수

서창공장을 찾은 헬스 트레이너 겸 운동 유튜버 핏불리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맞는 운동 가이드를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독학’ 콘텐츠가 그의 주특기다. 130만 유튜버가 성우인들을 위한 운동 팁을 주러 방문했다는 소식에 대강당이 가득 메워졌다.

그는 평소 성우인들이 운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주 몇 회 운동을 하는지 등 간단한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 후 자세 진단 및 운동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직립 자세에서 손을 편안히 내린 상태로 보는 라운드 숄더 진단법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해 흥미를 높였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잘못된 자세로 어깨가 굽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흉

곽을 열고 운동하는 법과 광배근과 견갑골 등 근 성장을 위해 제대로 자극을 주는 법도 설명했다. 특히 몸의 변화와 성장은 하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므로, 하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운동을 시작하며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하며, “정 식단 관리를 하기 싫은 분은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바로 밥 먹기 전 식이섬유(아채)를 꼭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실습 시간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성우인을 무대로 불러 체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목부터 하체까지의 근육 분포와 체형을 직접 만져보며 진단하고, 강화해야 하는 부위별 운동과 각자의 신체 상황에 맞는 체력 단련법을 전수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운동이 저녁 늦게 끝났을 때 어떤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는지 ▲쉽게 질리는 닭가슴살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단백질이 함유된 보충제의 섭취 효과를 늘리는 법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의 수행 순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과 등 현실적인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질문마다 자신의 경험을 가미해 성실하게 답변하며 “성우인들이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아산성우하이텍 체력단련실 새단장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몸을 느껴봐

아산성우하이텍이 성우인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느 고급 PT(Personal Training) 센터 못지않은 힙한 피트니스 공간을 마련했다. EV동 내에 갖춰진 체력단련실은 탈의실, 샤워장을 포함해 33평의 널찍한 공간으로, 기존의 노조 사무실과 노조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조성했다. 가벽을 철거하고 바닥 매트와 전선 거울을 설치했으며, 내외부에 현수막과 배너 등을 배치했다.

배치된 기구는 핀머신(중량) 8종, 프리웨이트 머신 5종, 유산소 머신 2종 등이다. 피트니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미스 머신과 파워랙 머신부터 랫풀다운, 체스트프레스 머신까지 다양한 부위별 운동기구가 갖춰졌다. 자신에게 맞는 중량을 고를 수 있는 덤벨랙과 효과적인 하체 운동을 돕는 라잉레그컬, 레그 익스텐션, 파워 레그 프레스도 설치됐다. 부상 위험을 피하고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러닝머신과 사이클은 기본이다.

아산성우하이텍을 시작으로 성우하이텍은 전 사업장의 체력단련실 시설을 개선 및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NO PAIN NO GAIN



앞서 몇 년간은 바디프로필 열풍이 SNS를 강타했지만, 최근 들어 점차 인식이 바뀌며 무리한 단기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일상에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돕는 성우하이텍의 공간 복지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는 경영 철학이 담겨 있다. 🌈



갑진년 기념 로직 게임 청룡의 힘으로, 비상하자 성우!

로직 게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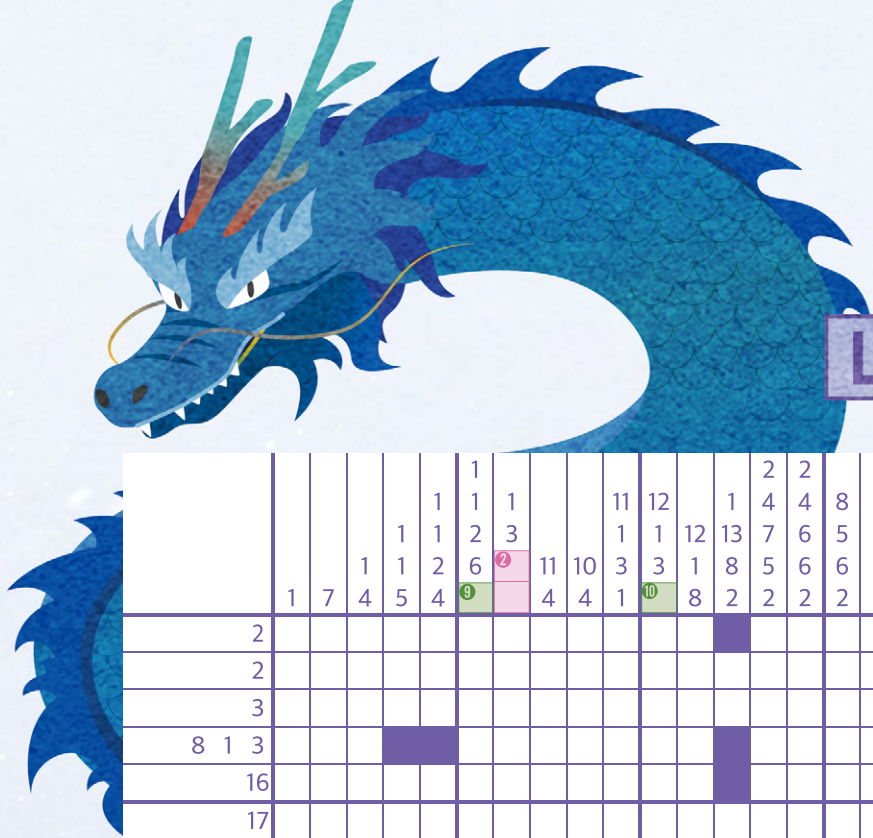
- 가로축과 세로축에 표시된 숫자만큼 칸을 채워 나가는 게임입니다.
- 칸을 모두 채우면 멋진 용 그림이 나타납니다.
-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에 대한 숫자 정답을 먼저 찾은 후, 해당 숫자를 축에 채워 넣고 로직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 반드시 축에 표시된 숫자만큼만 칸을 채워야 합니다.
- 가로와 세로축에 연속으로 숫자가 있을 경우, 축 안쪽의 숫자만큼 칸을 먼저 채우고 바깥쪽으로 진행합니다.
- 축에 2개 이상의 숫자가 있을 경우, 숫자와 숫자 사이의 점들에는 반드시 한 칸 이상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 높은 숫자(두 자릿수)가 있는 축부터 칸을 채워 나가는 것이 빠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숫자 채우기 힌트

문제를 읽고 정답을 찾아 비어 있는 축을 채워 넣으세요.

- 1 성우하이텍 설립 연도 : 1900
- 2 자동차부품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現 R&D센터)를 설립한 연도 : 1900
- 3 성우하이텍의 창립 기념일 : 8월 00일
- 4 성우하이텍 창립 50주년이 되는 연도 : 2000
- 5 성우하이텍이 5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연도 : 2000
- 6 2024년 용의 해, 용은 12간지 중 0번째 동물
- 7 2024년 제00회 파리 올림픽
- 8 2024년 총선은 제00대 국회의원 선거다.
- 9 2024년 여름 발간 예정인 성우하이텍 사보 <별을쏘다>는 제 00호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다.
- 10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0자녀로 확대 중이다.

※ 숫자 채우기 힌트 정답 및 로직 완성본은 58~59페이지에 있습니다.



LOGIC

						1	1	1				11	12		1	2	2		7				3	1	1						
				1	1	2	3					11	12		13	4	4	8	6			7	3	4	3	3					
			1	1	2	6	2	11	10			3	3	1	8	5	6	6	3	7	6	4	1	5	5	6	1	3	2		
	1	7	4	5	4	9		4	4	1		10	8	2	2	2	2	2	6	4	4	7	1	1	5	5	5	11	13	14	1
2																															
2																															
3																															
8 1 3																															
16																															
17																															
16																															
15 3																															
2 6 10																															
2 7 1 10																															
1 8 2 4																															
10 3																															
13 1																															
3 14																															
2 3																															
2 16																															
2 15																															
1 2 9																															
8																															
4																															
2 1 5																															
3 8																															
9 2 6																															
13 11																															
6 8 6 1																															
4 5																															
3 14 2																															
3 5 7 2																															
1 4 4 1																															
1 3 1																															
1 2																															
1 2																															
1 1																															
1																															
1																															

靑陽

칠갑산

별과 호수와 황룡 이야기!

걷는 곳, 보는 곳, 이야기가 있는 곳. 발길이 닿는 곳이
추억의 이야기가 되는 겨울 여행지!
순수한 자연과 어우러진 천장호출렁다리와
칠갑산 천문대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의 이야기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 보자.
맑은 공기와 깨끗한 호수가 반기는 청양한 그곳으로 going~



황룡의 전설, 천장호 출렁다리

소금장수와 호랑이가 마주쳤다는 소금쟁이고개를 지나 천장호가 펼쳐진다. 천장호 출렁다리를 건너며 바라보는 호수의 경관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황룡의 전설이 더해져 신비를 더한다. 출렁다리는 산기슭에 닿아 있다. 하늘에 제를 지내던 성스러운 산, 칠갑산이다.

칠갑산 산기슭과 이어진 천장호출렁다리는 청양군의 대표 명소다. 2017년 당시 국내 최장 출렁다리로 기록되었다.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모형의 주탑(높이 16m)을 통과하여 천장호수를 가로지른다. 호수 주변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출렁다리로 가는 도입부에는 어드벤처 시설 '에코워크'가 있다. 천장호 입구에서 황룡정까지 네트를 소재로 구성된 에코워크 시설은 천장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네트 워크 코스, 네트 브릿지 코스, 네트 타워 코스, 네트 어드벤처브릿지 코스 등 4가지 테마로 전체 길이 177m 구간에 23개의 체험요소로 구성되었다. 지상에서 최대 10m 높이





천장호 출렁다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4

041-940-2723

위의 네트 브릿지에서 스릴을 체험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천장호 자연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수변으로 2,000㎡ 규모의 생태체험원이 조성되어 관광객의 눈과 귀를 자연으로 인도한다. 마치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 예행연습이 되어주는 것 같다. ‘에코워크’를 지나 천장호 출렁다리에 발을 내디디면 출렁다리와 자연의 어우러짐에 절로 셔터를 누르게 된다. 과하지 않은 출렁거림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웃으며 건널 수 있다. 다리를 건너 산기슭에 도착하면 황룡과 호랑이의 전설을 테마로 꾸며놓은 포토존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기념 촬영을 하기 바쁘다.

이곳에서 수변 둘레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다. 왼쪽 데크 길에는 아기자기한 꽃말, 포토존이 있고, 다양한 나무들에 이름과 설명이 적혀 있다. 데크 끝은 청양알프스뷰티센터와 연결되는데, 센터 3층은 따뜻한 커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카페, 2층은 알프스갤러리로 상설 전시가 열려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오른쪽 수변 길은 트레킹을 하기에 더 적합한 길이다.

천장호 전설 이야기

천장호에는 황룡과 호랑이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어느 날, 이곳에 살던 아이가 몸이 아파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냇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물에 살던 황룡은 아픈 아이를 안타까워하며 승천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널게 하여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이를 본 칠갑산 호랑이가 감명을 받아 영물이 되어 이곳 주민들을 보살피려 왔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그 호랑이는 소금쟁이고개에서 도망쳤던 겁쟁이 호랑이가 아니었을까?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신비,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



칠갑산천문대스타파크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

041-940-2790

칠갑산천문대는 일반인을 위한 천문우주테마과학관으로, 백제의 진산(鎭山)으로 알려진 칠갑산의 산중에 자리 잡고 있다. 청양 여행 중 꼭 방문해야 할 명소다.

최고급 렌즈(아포크로메틱)를 이용한 304mm 대형 굴절망원경은 청양의 깨끗한 밤하늘을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보조관측실에는 여러 대의 고급 소형망원경들이 있어 별과 행성, 성운, 성단 등의 우주를 방문객이 직접 관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여러 별자리와 별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연구원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이 더해져 우주의 신비를 더욱 만끽할 수 있다.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안내 및 이달의 천문 현상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https://www.cheongyang.go.kr/star.do>).

이외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고화질 돔 형태의 천체투영관에서는 천문우주 관련 영상물 상영, 계절별 별자리 및 천체관측, 우주과학 관련 입체 영화 상영 등 조금 더 가까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천문우주 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북극의 오로라 영상은 강력 추천한다. 그야말로 실제로 북극에서 하늘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면서 절로 탄식을

내뻗게 된다. 칠갑산에서 뜻밖에도 하늘과 바람과 별의 유니버스를 다녀오게 된다. 별을 관측하는, 왠지 뻥할 것만 같은 천문대 방문은 '뻥하지 않은 특별한 추억'을 담은 여행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별자리 관측은 어두워지는 저녁부터 시작되므로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천문대 옆으로 나 있는 등산로를 즐겨도 좋다. 칠갑산은 다양한 등산로가 조성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천문대 주변으로도 안전한 등산로(칠갑산어머니길)가 있다. 산허리에 있지만 마치 동네 산책로를 걷는 듯한 편안한 코스로, 부모님, 어린아이 등 가족과 함께해도 무난하다.

천문대까지는 자가용으로 방문할 수 있어 주차를 미리 해두고 트레킹을 하면 된다. 칠갑산은 잘 보존된 자연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좋고 정겨워 자연 친화적이라 느껴진다. 황룡이 몸을 바쳐 아이를 구한 전설은 칠갑산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설화인 것 같다.



모덕산 제공 | 청양군




청양알프스마을 제공 | 청양군

청양한 겨울 여행

청양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추천 여행지가 있다. 골라 걷는 재미가 있는 다양한 등산코스의 칠갑산이 사계절 친근한 곳이라면, 알프스마을은 겨울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다. 겨울의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 알프스마을은 겨울이면 얼음 분수 축제와 빙어낚시, 눈썰매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모덕사(1914년 건립,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 12)는 조선 후기 애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1833~1906)의 영정을 모신 사우(祠宇)로, 연못과 어우러진 사찰의 풍경이 고즈넉하다.

Tip 청양 여행 꿀팁

청양투어패스(QR코드 참고)를 활용하면 투어패스권 1장(성인 기준 9,900원)으로 청양의 유명 관광지를 하루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페,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의 특별할인 가맹점도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해보길 바란다. 





겨울愛(애) 희망饌(찬) 어벤저스, 올해 김장도 부탁해!

반짝 추위가 겨울을 재촉하는 12월의 첫날.
이른 시간부터 소주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끌벅적하다.
지하 주차장 한편에 쌓인 절인 배추와 일렬로 늘어선 테이블,
큰 통 두 개를 가득 채운 빨간 양념까지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겨울맞이 큰 행사,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현장이다.

김장 나누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아동·청소년, 저소득 어르신,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여러 이웃에게 전달되는 김장 행사는 성우하이텍의 대표적인 이웃 돕기 행사이다. 많은 분께 전해드리려다 보니 매년 5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담아야 한다. 그래서인지 김장 행사장을 찾아 일단 배추를 마주하면 기부터 놀린다.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이걸 언제 다해’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찬다.

김장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 관건은 참여자 각자가 본인의 위치에서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김장 행사에 참여하는 성우인들의 능력치는 수준급이라 할 만하여 늘 ‘엄지 척’

을 부른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들 김장 행사가 처음이라면서도 알아서 자리를 잡고 할 일을 찾는 분주한 모습이다. 절인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버무리고, 테이블을 돌며 버무린 김치를 옮겨 포장하는 일까지. 거침이 없고 재빠르다. 일당백 몫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김장 어벤저스라 부를 만하다.

쌀쌀한 날씨에 움츠러들고 반복되는 작업에 지칠 만도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양념 버무린 김치를 옮기다 동료의 입에 넣어 주는 맛깔난 김치에 웃으며 화답하고, ‘버무린 김치 포장-박스 포장 마무리-나눔 스티커 부착’까지의 과정을 기계처럼 착착 진행한다. 잠깐 허리를 펴는 시간에는 목청 높여 스트레칭 구호를 맞추며 파이팅을 외치는 성우인들. 매년 함께하는 웅상나눔회(사)희망웅상 회원들이 ‘일 잘하는 성우인’, ‘에너지 넘치는 성우인’이라고 입 모아 말하는 부분이다.

이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성우인들에게서도 하나같이 긍정 에너지가 전해졌다.



박현욱 매니저
안전보건팀

버무려진 김치를 포장 테이블로 배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중간중간 어르신들에게 파이팅도 외치면서 기분 좋게 도왔습니다.



전소희 매니저
재경3팀

김장 봉사에는 처음 참여합니다. 절임 배추가 너무 많아서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다 같이 하니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힘이 되었어요.



이대산 매니저
품질보증팀


김치 포장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치를 담아 전달해 주시면 봉투를 묶어서 박스 포장조에 전달하는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하긴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정이정 매니저
품질보증팀

집에서 김장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김치를 한꺼번에 담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서 일하니 허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많은 분이 함께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한편, 올해 겨울(애) 희망(찬) 김장나누기를 위해 '성우공동모금'에서 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성우공동모금'은 성우 임직원 1,0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만든 기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우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지원금은 절임 배추 및 양념 구입, 포장 박스 구입 등에 고루 사용되었으며, 이날 함께 담근 김치 560여 포기는 아동·청소년, 저소득 어르신,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김장과 함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내년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갑진년 기념 로직 게임 힌트·정답 및 완성본

① 성우하이텍 설립 연도



1977.08

성우금속공업사 설립 (동구 좌천동)

② 성우하이텍 기술연구소 설립 연도



1994.10

기술연구소 설립인개(정관2공장)

③ 성우하이텍의 창립 기념일

④ 성우하이텍 창립 50주년이 되는 연도

회사명	(주)성우하이텍	창립일	1977. 8. 15
사업장	자동차 부품제조	직원수	17,500 명
국내외 진출	성우하이텍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에 도전합니다.		
주요 4대 사업	15대 사업 부품, 엔진, 전장, 자동차, 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핵심 10대 사업	2대 사업 엔진, 전장, 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부품(부품)		

⑤ 성우하이텍이 5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연도



(주)성우하이텍, 2017 부산 Trade Night 행사에서 산업포장 및 5억불탑 수상

관리자 | 2017-12-19 00:00

⑥ 2024년 용의 해, 용은 12간지 중 ○번째 동물



⑦ 2024년 제○○회 파리 올림픽



⑧ 2024년 총선은 제○○대 국회의원 선거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⑨ 2024년 여름 발간 예정인 성우하이텍 사보 <별을 쏘다>는 제○○호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다.



⑩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자녀로 확대 중이다.



출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직 게임 완성본

[illegible]

청룡의 힘찬 기운을 성우가족에게 드려용!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청룡은 풍요와 위엄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2024년 한 해, 승천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이
성우가족 모두에게 닿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주)성우홀딩스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인도SHA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성우하이텍 GMBH,
멕시코법인, 미국법인